

태국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1. 6.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8
IV. 국제신인도	12
V. 종합의견	14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I. 일반개황

면적	513천 Km ²	GDP	3,189억 달러(2010년)
인구	66.7백만 명(2011년)	1인당 GDP	4,720달러(2010년)
정치체제	입헌군주하의 내각책임제	통화단위	Baht(Bt)
대외정책	친서방 중립노선	환율(달러당)	31.69(2010년)

- 태국은 ASEAN 국가 중 인구 4위, GDP 규모 2위를 차지하는 동남아시아의 대표적인 신흥경제국으로 제조업 중심의 수출 및 관광산업 등 서비스업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며 포스트 브릭스로 주목받고 있음.
- 입헌군주국인 태국은 1946년 즉위한 푸미폰 아둔야뎃 국왕이 국가원수로서 국민들의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하고 있음. 실질적인 국정 운영은 총리에 의해 이루어지며 2006년 군부 쿠데타로 탁신 전 총리가 퇴임한 이후 친-반 탁신 세력 간의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현재는 아피싯 웨차치 민주당 총재가 총리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
- 태국은 2010년 기준 상품 및 서비스 수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1%에 육박할 정도로 대외의존도가 높으며 수출대상국도 미국, 일본, 중국 등에 편중되어 있음. 이로 인해 세계경기 침체로부터 큰 타격을 받아 2009년에는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으나, 이후 세계경기의 회복으로 빠른 경제회복세를 보임.
-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인 외채상환, 신규차입 감소 등으로 외채규모는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3대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모두 투자적격등급을 받고 있음.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f
경제성장률	5.0	2.5	-2.3	7.8	4.3
재정수지 / GDP	-2.3	-1.1	-4.4	-1.3	-3.1
소비자물가상승률	2.2	5.4	-0.9	3.3	4.5

자료: IMF 및 EIU.

□ 2010년 플러스 경제성장률로 전환

- 태국 경제는 제조업 중심의 수출과 관광산업 등 주력 산업이 호조세를 보이며 2007년까지 5% 안팎의 비교적 양호한 성장세를 기록해 왔음.
- 그러나 2008년 세계경기 침체로 인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수입수요 감소, 산업생산 위축, 내수 부진과 함께 잦은 총리 교체, 방콕 공항 폐쇄와 같은 반정부 시위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2.5%로 둔화되었음.
- 세계경기 침체의 영향이 본격화된 2009년에는 수출 감소세 지속, 실업률 상승에 따른 소비 감소, 고정자본투자 위축 등으로 1997년 아시아 외환 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2.3%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음.
- 2010년에는 세계 경기가 당초 예상보다 강한 성장을 보이면서 태국의 수출 산업이 호조세로 돌아섰으며, 특히 산업생산이 2009년 중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기저효과가 반영되어 14.4%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며 태국의 경제성장을 이끌어 2010년 경제성장률은 7.8%까지 상승하였음.

□ 재정수지 적자 부담 다소 완화

- 태국의 재정수지는 정부의 긴축정책의 효과로 인해 균형을 유지해 왔으나, 2006년 9월 쿠데타 이후 집권한 술라웃 과도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확대 재정정책 기조를 추진함에 따라 2007년부터 재정수지 적자를 지속하고 있음.

-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 및 경기부양을 위한 지출증가로 2008년에는 GDP 대비 1.1%의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2009년에는 GDP의 4.4%로 전년 대비 크게 확대되었음.
- 2010년에는 정부지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으로 세수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재정적자는 GDP의 1.3%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정부는 차관도입을 통해 재정적자를 충당할 예정으로, 이로 인해 공적채무가 증가하고 있음(2010년 말 기준 공적채무 규모는 GDP 대비 43.1%를 기록하였음).
- 재정수지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태국 정부는 2009/10년('09.10~'10.9) 회계연도의 계획 재정지출을 1.9조 바트에서 1.7조 바트로 2,000억 바트만 큼 축소시켰으나, 2010/11년 회계연도에는 2.1조 바트로 4,000억 바트만 큼 다시 증가시켰음.

□ 소비자물가상승률 상승세

- 2007년 경제성장 둔화, 바트화 강세에 따른 수입단가 하락 등으로 안정세를 보였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008년 상반기 고유가와 식료품 가격 상승이 이어지면서 7월에는 최근 10년 내 최고치인 전년 동기 대비 9.2%를 기록하였으며, 2008년 연평균 5.4%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록하였음.
- 그러나 2008년 하반기 이후 세계경기 침체에 따른 경기 둔화 및 소비심리 위축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급속히 하락하였으며, 2009년에는 원자재 가격의 하향 안정세로 소비자물가가 0.85%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이 발생하였음.
- 2009년 하반기 이후 세계 경기의 회복으로 수출산업 및 내수 시장이 살아나고 원유와 국제 상품가격이 상승하면서 2010년에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3.3% 수준으로 상승하였으며, 물가상승 추세는 2011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 2010년 7월 이후 기준금리 지속적 인상

- 태국 중앙은행(Bank of Thailand: BOT)은 국내소비 및 투자 촉진을 위해 2008년 12월부터 2009년 4월까지 기준금리를 250bp 인하한 이후 1.25% 수준에서 유지하다가 2010년 7월 1.5%로 25bp만큼 인상하였음.
- 이후 태국의 경기가 예상보다 급격히 확장되면서 2010년 8월 및 12월, 2011년 1월과 3월, 4월, 6월에 각각 25bp 인상하여 2011년 6월 기준 3.0%를 유지하고 있음.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정국 불안, 고유가, 산업 편중성 등 경제 취약 요소 상존

- 태국 경제의 취약성은 크게 (1) 정치 불안에서 오는 민간소비 및 투자심리 위축, (2) 고유가 현상에 대한 취약성, (3) 미국, 일본, 중국 등 일부 수출대상국에 대한 의존도 심화, (4) 전자산업 및 부품산업에 대한 편중성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
- 정국 안정이 태국 경제회복의 최대 변수이며 특히 불안한 정치상황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이 해결해야 할 과제임.

나. 성장 잠재력

□ 포스트 브릭스 국가로 주목

- 태국은 ASEAN의 중심 국가이자 포스트 브릭스 국가로 주목받고 있으며, 튼튼한 내수시장과 전자산업 중심의 비교적 건실한 제조업 기반을 갖추고 있어 성장잠재력은 풍부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태국은 10개 ASEAN 회원국 중 2010년 기준 인구 4위(6,700만명), GDP 규모 2위(3,189억 달러), 수출 3위(2,273억 달러) 등 대부분 경제사회 지표에서 상위권 기록

- 이러한 이유로 많은 국가들이 태국 진출을 추진 중이며, 태국은 이미 호주, 뉴질랜드, 일본, 중국 등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였음. 또한 미국, 페루, 인도 등과 FTA 협상이 진행 중이어서, 향후 태국의 외국인 투자 및 교역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다. 정책성과

□ 수출주도형 경제정책 주요

- 태국은 농업기반의 전통적 경제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1970년대 이후 대외지향적인 수출주도형 경제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시장개방, 민영화, 규제완화 등 적극적인 개발정책을 추진하면서 경제성장을 도모해 왔음.

□ 두 차례에 걸친 경기부양책 실시

- 태국 정부는 경기침체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2008년 하반기부터 두 차례에 걸친 경기부양책을 발표하였음.
- 1,150억 바트(약 34억 달러) 규모의 1차 경기부양책은 저소득층 지원 확대를 통한 경기 활성화를 목표로 마련되었으나, 저소득층을 위한 보조금이 소비보다 저축으로 쓰이며 내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자 경기부양책의 실효성 논란과 함께 아피싯 정권의 저소득층 지지기반을 확보하려는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기도 했음.
- 이에 정부는 인프라 건설, 수자원 개발, 보건, 교육 분야 투자 등에 비중을 두며 투자를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장기적 성장에 비중을 둔 1조 4,000억 바트(약 420억 달러) 규모의 2차 경기부양책을 발표하였으며, 2012년까지 예산이 집행될 예정임.
- 태국 정부는 장기적으로 경기부양책이 고용 창출 및 경제성장을 회복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보고 있으나, 재정수입 부족으로 인해 예산외지출로 경기부양책을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언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예상하기 어려움.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f
경 상 수 지	15,677	2,210	21,862	14,696	8,326
경 상 수 지 / GDP	6.3	0.8	8.3	4.6	2.3
상 품 수 지	26,762	17,385	32,690	32,282	25,841
수 출	151,240	175,215	150,712	193,534	231,213
수 입	124,478	157,830	118,022	161,252	205,372
외 환 보 유 액	85,110	108,317	133,599	165,656	..
총 외 채 잔 액	61,738	64,798	70,304	81,824	90,596
총외채잔액/GDP	25.0	23.8	26.7	25.7	25.5
D. S. R.	8.0	7.6	7.3	5.9	5.8

자료: IFS 및 EIU.

□ 수입 규모 지속적 증가로 상품수지 흑자폭 축소

- 태국은 ASEAN 회원국 중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에 이어 수출 규모 3위인 수출주도형 국가이며, 2010년 기준으로 상품 및 서비스 수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71.3%에 육박할 정도로 대외거래 의존도가 높은 국가임.
- 농업과 제조업(전자제품)의 수출 호조로 인해 2005년 최초로 수출액이 1,000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 2003년부터 6년 동안 태국의 상품수출 규모는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왔으나, 2009년에는 태국 수출의 약 40%를 차지하는 미국, EU, 일본 등 주요 수출국의 경기 침체로 인해 수출액이 전년 대비 14% 감소하였음.
- 한편 국내 소비·투자가 위축되고 원자재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수입규모도 급격히 감소하여 2009년에는 상품수지 흑자가 327억 달러 규모로 오히려 전년 대비 확대되었음.
- 2010년에는 세계경기 회복세로 수출이 전년 대비 28.4% 증가하였으나, 수입 또한 국내 소비·투자의 회복으로 수출보다 더 큰 폭인 36.6% 증가함에 따라 상품수지 흑자는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며, 2011년에도 수입 증가폭이 수출 증가폭을 상회하여 상품수지 흑자가 더욱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경상수지 흑자 규모 축소 전망

- 흑자 기초를 유지하던 경상수지는 2005년 쓰나미로 인한 관광산업 부진과 이로 인한 서비스수지 적자폭 확대 등으로 GDP 대비 4.3%의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수출증가 및 관광산업 호조로 2006년부터 다시 흑자로 반전되었음.
- 2008년에는 수입확대 및 반정부 시위로 인한 관광산업 침체로 인해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GDP의 0.8% 수준으로 크게 감소하였으나, 2009년에 상품수지 흑자 규모가 확대되고 서비스 수지 적자가 감소함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가 GDP 대비 8.3%로 다시 크게 증가함.
- 2010년에 서비스수지 적자 규모가 다시 확대되어 경상수지 흑자는 GDP의 4.6%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1년에는 상품수지 흑자 감소 및 서비스수지 적자 증가가 예상되어 경상수지 흑자의 GDP 대비 비중은 더욱 작아질 것으로 전망됨.

□ 외채관련 지표 개선

- 태국은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인 외채상환, 신규 차입 감소, 정부의 신중한 외채관리정책에 힘입어 외채관련 지표가 지속적으로 개선되었음.
- GDP 대비 외채규모는 1998년 93.8%에서 2008년 23.8%까지 하락하였으나, 2009년 경기침체의 영향을 받아 GDP의 26.7%로 확대된 이후 2010년까지 25%대를 유지하고 있음. 총수출 대비 총외채잔액 또한 2009년 37.7%로 큰 폭 증가하였으나, 2010년 들어 35%로 다소 감소하였음.

□ 외환보유액 증가세 지속

- 2009년도 말 외환보유액은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약 23.3% 상승하였으며 2010년에도 전년 대비 24% 증가한 1,657억 달러를 기록함. 이에 따라 월평균수입액 대비 외환보유액도 2008년과 2009년 각각 5.9개월, 8.3개월에서 2010년 9.9개월로 상승함.

Ⅲ. 정치·사회동향

1. 정치안정

□ 정치적 불안정 지속

- 2006년 9월 군부 쿠데타 이후 처음 실시된 2007년 12월 총선에서 탁신 전 총리 계열의 국민의 힘(People's Power Party: PPP)당이 5개의 군소 정당과 연합하여 총 315석을 확보하는데 성공하였음. 이후 사막 순다라벳(Samak Sunthorawet) PPP 총재가 총리로 취임하며 군부 쿠데타 발생 1년 5개월 만에 민간정부가 취임하였음.
- 하지만 2008년 5월부터 시작된 국민민주주의연대(People's Alliance for Democracy: PAD)의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면서 9월에는 친정부와 반정부 시위대의 유혈 충돌이 발생하여 태국 전역에 비상사태가 선포되기도 하였음. 결국 헌법재판소가 공직자 겸직 금지 위반으로 사막 총리의 사퇴를 결정함에 따라 솜차이 웅사왓(Somchai Wongsawat) 교육 부총리가 26대 총리로 선출되었음.
- 솜차이 총리는 탁신 전총리의 매제로서 PAD 반정부 단체는 수와나폼 국제공항을 점거하는 등 강력한 투쟁을 지속하였으며, 2008년 12월 헌법재판소가 탁신계열의 집권 정당연합에 대해 선거부정을 이유로 해체 판결을 내림에 따라 내각이 총사퇴하였음.
- 이후 총리 선출 투표 실시 결과 솜차이 총리가 물러나고 민주당(Democratic Party: DP)의 아피싯 웨차치(Apisit Vejjajiva) 총리가 취임하게 되면서 국가화합을 위한 정치개혁을 실시하고 있음.

□ 친정부세력과 반대세력간 분쟁 심화

- 아피싯 총리 취임 이후 2009년 3월에는 탁신 전 총리의 지지단체인 UDD(National United Front of Democracy Against Dictatorship)가 의회 해산을 요구하며 정부청사를 봉쇄하는 등 반정부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아피싯 총리는 비상사태를 선포하였으며, ASEAN+3 정상회의가 무산되기도 하였음.

- 2010년에도 UDD의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면서 친정부세력과 반대세력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음. 2010년 5월에 정부의 반정부 시위대 강제 진압으로 시위가 종료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유혈사태가 발생하고 관광산업이 침체되는 등 사회·경제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음.
- 특히 이번 유혈사태의 저변에는 국왕과 왕실, 군부 등 지배 엘리트 계층과 농촌·빈민층 간의 계급 투쟁적인 성격이 깔려 있어 갈등이 쉽게 해소되기 어려운 상황임.

□ 푸미폰 국왕의 노쇠화로 인한 정정 불안

- 태국에서 '살아있는 부처'로 추앙받으며, 현실 정치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푸미폰 아둔야뎃(Bhumibol Adulyadej) 국왕이 현재 83세의 고령과 건강 악화로 장기입원 상태에 있어 태국의 정정 불안을 키우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푸미폰 국왕은 2009년 9월 고열과 피로, 식욕 부진 등의 증세를 보여 방콕 시리라즈 병원에 입원한 뒤 장기 치료를 받고 있으며, 실제로 입원 후 태국의 주가지수가 10월 14~15일 이틀간 7% 하락하였음.
- 반정부 시위대는 정정불안 해소를 위해 푸미폰 국왕이 개입해야 된다고 촉구하고 있지만 국왕은 최근의 사태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는 상황임.
- 또한 향후 왕위 계승 문제가 태국 정국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며, 계승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치적 혼란이 초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당분간 정치·사회적으로 불안한 상황 지속될 전망

- 친정부세력과 반대세력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규모 시위와 폭력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등 한동안 태국은 정치, 사회적으로 불안한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UDD는 2010년 3월부터 5월까지 방콕 중심가를 점거한 채 대대적인 반정부 시위를 벌였으며, 아피싯 총리는 국내보안법을 발동하고 방콕과 지방 18개주에 대해 비상사태를 선포하였음. 정부가 시위대 강제 진압을 벌이면서 유혈 사태로 번지기도 했으며, 이 기간 동안 88명의 사망자와 2,00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음.

3. 국제관계

□ 동남아 지역과의 관계 강화

- 태국은 1967년 동남아시아 국가 간 평화, 안보 및 경제협력 강화를 위하여 ASEAN 창설과 함께 AFTA 창설 또한 주도적으로 제안하며 동남아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 왔음.
- 한편, 최근 태국의 정정 불안에 따라 ASEAN 정상회의가 두 차례 무산되는 등 타 ASEAN 국가들의 신뢰도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임.

□ 양자 및 다자간 무역확대 움직임

- 태국은 미국, 일본, 중국, 인도 등 여러 국가와의 FTA 협정 체결에도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며 양자 및 다자간 무역 확대를 위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특히 탁신 정부 이후 과거 소규모 경제권을 중심으로 FTA를 추진하던 것에서 탈피하여 대규모 경제권과의 FTA를 과감히 추진하였는데, 이는 동아시아의 경제 블록화를 통한 세계 3대 지역주의 중 한 축의 중심에 서겠다는 의지로 해석됨.
- 일본은 태국과 2007년 경제동반자관계협정을 체결하는 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0년에도 약 62억 바트의 투자 승인을 얻음으로써 제1위의 투자국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 한편 태국은 2003년부터 추진해 왔으나 2006년 군부 쿠데타로 중단되었던 미국과의 FTA 협상을 2009년 2월에 3년 만에 재개하기로 합의하여 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음.

□ 캄보디아와의 외교분쟁 악화

- 2008년 7월, 캄보디아-태국 간 오랜 분쟁지역이었던 국경지대의 프레아 비헤아르(Preah Vihear) 사원을 캄보디아가 태국 외무장관의 서명을 바탕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면서 사원의 소유권 문제를 놓고 양국의 분쟁이 격화되었음.
- 태국의 야당과 시민들은 내각의 행위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고 이후 태국 헌법재판소에서 양국의 공동성명에 서명한 외무장관의 행위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태국내 반대여론과 시위가 더욱 확대되었음.
- 이후 프레아 비헤아르 사원의 영유권을 두고 양국의 군대가 국경에서 대치하면서 여러 차례 교전을 벌이고 있으며, 지난 2월에도 교전이 발생하는 등 오랜 기간 지속되어온 국경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가능성이 크지 않음.
- 한편 2009년 10월에는 탁신 전 태국 총리가 캄보디아의 경제고문으로 임명되면서 양국은 각각 상대국 주재 대사를 소환하였으며, 기존에 체결한 모든 양자 협약에 대해 재검토하는 등 외교 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았음.
 - 태국은 태국만의 26,000km²에 달하는 해역에서 유전과 가스전을 양국이 공동개발하기로 한 2001년의 양해각서(MOU)를 폐기하기로 하였으며, 캄보디아는 태국 국경과 연결되는 고속도로 현대화계획과 관련해 2009년 태국과 합의한 4,120만 달러의 차관 도입계획을 취소하겠다고 발표하였음.
- 2010년 캄보디아의 훈센 총리가 탁신 전 태국 총리를 경제고문에서 물러나게 한 이후 양국 관계는 개선 조짐을 보였으나 영유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여서 양국 관계가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됨.

I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대외지급능력 양호

-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인 외채상환, 신규 차입 감소 등으로 외채규모는 적정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외환보유액도 경상수지 흑자기조 및 외국인투자 유입 증가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또한 D.S.R. 및 GDP 대비 단기외채 수준 등을 감안할 때, 대외지급능력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됨.

2. 국제시장평가

□ 주요 신용평가기관 평가현황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수출입은행	B2 (2011. 5)	B2 (2010. 8)
OECD	3등급 (2011. 3)	3등급 (2010. 4)
S&P	BBB+ (2010.12)	BBB+ (2008.12)
Moody's	Baa1 (2011. 3)	Baa1 (2010.10)
Fitch	BBB (2011. 5)	BBB (2009. 4)

* Euromoney: 62/186 (2010. 3) → 45/186 (2010. 9) → 42/186 (2011. 3)

* I.I.: 54/177 (2009. 3) → 55/177 (2009. 9) → 52/177 (2010. 9)

* I.C.R.G.: 89/140 (2009.12) → 82/140 (2010. 4) → 64/140 (2011. 3)

- 태국은 S&P, Moody's, Fitch 등 3대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모두 투자 적격등급을 유지하고 있음.
- S&P는 2008년 12월 태국의 공항 폐쇄와 반정부 시위를 반영하여 BBB+ 신용등급에 대한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췄으나, 2010년 12월 정치 및 경제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다시 '안정적'으로 상향조정함.
- Fitch는 2009년 4월 태국 정부가 폭동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정국 불안

이 더욱 가중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태국 장기외화표시채권의 신용등급을 BBB+에서 BBB으로 하향조정하였음. 등급 전망은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올렸으며 이후 2010년 4월까지 등급을 유지하고 있음.

3. 주요 ECA의 지원태도

- 미국 EXIM: 최고 부보율 적용
- 영국 ECGD: 최고 부보율 적용
- 독일 Hermes: 단기 전액인수가능

4.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1958년 10월 1일 (북한과의 수교 : 1975년 5월 8일)
- 주요협정: 무역협정(1961), 항공협정(1968), 이중과세방지협약(1977), 일반여권사증면제협정(1981), 과학기술협력협정(1985), 투자보장협정(1989), 해상운송협정(2002), 문화교육협정(2004)

□ 교역규모 및 해외직접투자 현황

<표 4> 한-태국 교역 규모

단위 : 백만 달러

對 태국	2008	2009	2010	주요품목
수 출	5,779	4,528	6,460	섬유, 신발, 어류, 쌀, 자동차, 전기·전자제품
수 입	4,282	3,239	4,169	전자부품, 산업용 전자제품
합 계	10,061	7,767	10,629	

자료: 한국무역협회

- 태국은 남북한 동시수교국이지만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우방으로 양자관계는 물론 ASEAN, ASEM, APEC 등 다자관계를 통해서도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2007년 12월 한-ASEAN FTA 최종 합의, 2009년 6월 한-ASEAN FTA 투자협정 서명 등을 통해 외교, 정치뿐 아니라 경제협력 측면에서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이를 반영하듯 태국과의 교역규모는 꾸준히 증가하며 2008년 100억 달러를 돌파하였으며, 2009년 중 경기 침체로 인해 교역 규모가 77억 달러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2010년에는 경기 회복으로 양국간 교역규모가 106억 달러로 확대되었음.
- 우리기업의 대 태국 해외직접투자는 2010년 12월말 기준 총 1,644건, 11억 8,586만 달러(투자누계 기준)를 기록하였음.

VI. 종합 의견

- 태국 경제는 제조업 중심의 수출과 관광산업 등 주력 산업이 호조세를 보이며 2007년까지 5% 안팎의 비교적 양호한 성장세를 기록해 왔으나, 2008년과 2009년 세계경기 침체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각각 2.5%와 -2.3%로 둔화되었으며 2010년에 수출 산업의 회복으로 경제성장률이 7.8%까지 상승함.
- 재정수지는 정부 긴축정책의 효과로 인해 균형을 유지해 왔으나, 2007년 GDP 대비 2.3%의 적자로 반전된 이후 적자를 지속하고 있으며,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와 경기부양을 위한 지출증가로 2009년에 GDP 대비 4.4%로 크게 확대된 이후 2010년 들어 1.3% 수준으로 감소함.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09년 디플레이션을 기록한 이후 상승세를 나타내어 2010년 중 3.3%를 기록함.
- 2006년 군부 쿠데타로 탁신 전 총리가 퇴임한 이후 친-반 탁신 세력 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으며, 2008년 12월 아피싯 총리 취임 이후 탁신 전 총리의 지지단체인 UDD의 반정부시위와 유혈사태가 지속되고 있어 태국의 정국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
- 2009년 경기침체의 영향을 받아 외채규모가 확대되었지만, 외환보유액은 경상수지 흑자기조 및 외국인투자 유입 증가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D.S.R. 및 단기외채 수준 등을 감안할 때, 대외지급능력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됨.

조사역 이 순 재 (☎02-3779-5705)

E-mail: soonjaelee@koreaexim.go.kr